

“장수군 대도약하는 원년 될 것”

최훈식 군수, 신년 기자 간담회 갖고 분야별 정책 방향 제시·강력 추진 의지 표명

최훈식 군수가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주요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신속하고 실행력있는 사업추진으로 장수군이 대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어느 한 분야만 치우치지 않은 민생, 교육, 소득, 복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최 군수는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으로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고,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학교 교육지원사업 확대 △플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신설 △청년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대학생들까지 학업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최훈식 장수군수가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의 시장의 불안, 기후 변화, 각종 자연재해, 인력 부족 등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반값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관로 걱정·영농환경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으로는 농업이 처한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1호 고향사랑기부자 탄생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전주 세종문고 김락영 대표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관내 1호 기부자가 탄생했다고 2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와 전주 세종문고 김락영 대표다. 최형진 대표는 진안군 용담면이 고향으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미래하이텍을 경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기부하고 싶어 준비해오다가 새해의 시작을 기

부로 시작하게 됐다”며 법정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김락영 대표는 진안군 정천면이 고향으로 현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세종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정천면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고향 진안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여건이 닿는 한 정기적으로 기부할 계획이며, 우리 모두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정기기부자의사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장수군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지증진 사업

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인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담례품을 제공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장수=고관호 기자

“단합된 힘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전춘성 진안군수, 기자회견 가져

전춘성 진안군수는 2일 “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인구소외지역대응 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진안 군민의 희생으로 탄생한 용담댐과 주변지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댐주변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안 경제의 핵심축인 진안읍을 역사, 문화, 행정, 상업들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도시로 탈바꿈 시켜서 이 안에서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진안군 전역으로 퍼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민선8기 군정 주요현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해 인만큼 민선 8기 군정비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군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 군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계묘년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

진안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2023 계묘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춘성 군수는 시무식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의미의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뜻을 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 해의 새 각오로 새로운 길을 열어 진안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 2023년에는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랑스러운 진안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엇보다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탄생한 용담댐과 주변지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댐주변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주문했다.

특히 “올 한해 단기적인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 내실을 기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지방분권, 기후변화 등 대내외 정책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진안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계묘년 새해 첫 업무 돌입

황인홍 군수는 새해 첫 일성으로 중령이산(衆力移山·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을 사용했다. 무주군은 2일 무주예체문화관 1층 대공연장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황 군수는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시의적절한 단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기 위해 올 한해 군은 군민들과 더 가까이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말 태권도와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의 명성을 드높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힘든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성과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군도 용역비 확보를 계기로 올 한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무주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은 일터·쉼터가 조화로운 무주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는 명실상부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기부자와 지역 생산자, 자치단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1석3조 효과와 함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군은 올해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8기 군정목표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해 △풍요로운 문화관광 추진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받는 섬김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무주군이 2023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유호연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반 7명이 참여하는 ‘조기발주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총괄반장(산업건설국장), 사업지원반(1·2반)으로 구성 운영되며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재해위험지구(삼유·마산·왕정)와 급경사지 붕괴위험(나립·사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골고리천·유동천·왕내천 등 6개소) 등 2023년 3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을 2월말까지 90%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1개 지구 125억1천4백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은 이들 사업에 6월말까지 60% 이상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가소득 위한 원에 분야 경쟁력 강화한다

무주군은 올해부터 원에 분야 소득작목 분야에 대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과수를 비롯한 채소, 특작, 화훼 등 반딧불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촌진흥기관의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범비 14억3천여만 원을 들여 원에 분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쏟는다.

올해 중점 육성될 분야를 보면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시범단지 조성 등 과수분야 9개 사업에 8억5천6백만 원, 고랭지 여름상추 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 채소분야 3개 사업에 4억5천7백만 원,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시범사업 등 특작화훼분야 2개 사업에 1억1천4백만 원을 집중 투입한다.

사과 등 무주 대표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CT 적용기술이 도입해 기상과 생육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농가가 데이터를 잘 활용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